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저속하며 발칙한 책들

이상한 책들의 도서관

에드워드 브룩-히칭 지음
최세희 옮김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흥미롭고, 놀라운 책 세상이 펼쳐진다. 기괴하고, 유쾌하고, 경이롭고, 때론 섬뜩하고.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책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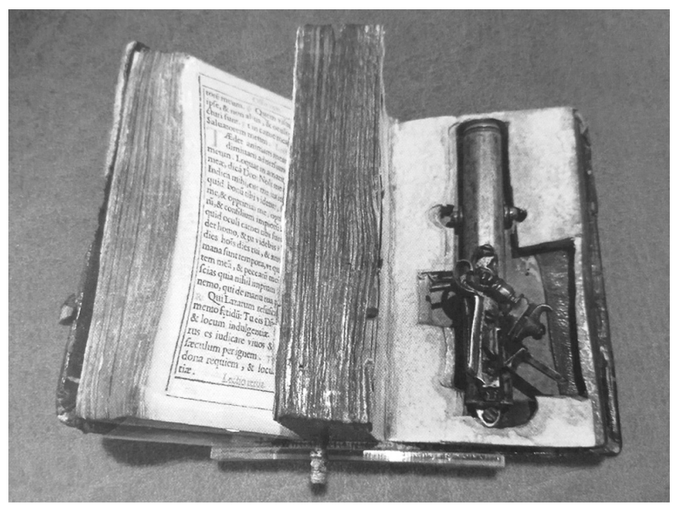
호신용으로 쓰이는 권총을 품은 기도서는 책을 덮으면 발사되고, 방아쇠는 책갈피처럼 만들어 위장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애서가를 위해 만들어진 변기 책, 너무 커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면 모터를 동원해야 하는 책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넘쳐난다.

희귀 서적상의 아들로 태어나 책 더미 속에서 자란 작가겸 다큐 제작자 에드워드 브룩-히칭의 '이상한 책들의 도서관'은 금기와 규범을 어기고, 만인에게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꿋꿋이 음지에서 자리를 지켜낸 책들에 대한 이야기다. 책의 성격은 부제인 '희귀서적 수집가가 안내하는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저속하며 발칙한 책들의 세계'가 잘 보여준다. 저자는 책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추방된 책들에 '제 자리'를 찾아준다.

저자는 방대한 자료를 모아 기상천외한 큐레이션을 선보이는 작가로도 유명한데 책에 펼쳐놓은, 사실적이고 화려한 삽화와 실물 책은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인간의 피부로 제본한 프랑스 외과의 세베랑 피노의 '처녀의 순결과 타락에 관하여'(1663)처럼 신체 일부로 만든 책은 먼 옛날에나 있었던 엽기적인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사례가 있다.

1997년 60세 생일을 맞은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서예가를 불러 자신의 피로 코란을 몽땅 필사할 것을 명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나는 당연히 많은 피를 흘려야했으나 실상 거의 흘린 적이 없다. 알라신의 은총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의미에서 그의 언어를 내 피로 써달라"는 게 그의 변이었다. 그에게서 직접 채취한 것으로 알려진 27ℓ의 혈액과 기타 화학 물질을 혼합한 잉크가 만들어졌고 2년 동안 33만 6000개 단어로 구성된 6000개의 구절이 피로 쓰였다. '피의 코란'은 2010년 이래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은 채 공무원 세명이 각자 한 개씩 열쇠를 맡아 관리하는 지하 금고실에 보관중이다.



권총을 품은 기도서. 이탈리아 베니스의 공작 프란체스코 모로시니의 주문으로 제작됐다.

세상을 속이고 기만하는 책의 역사를 다룬 '출판 사기'의 대표 주자는 히틀러와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초반, 독일 잡지 '슈테른'의 기자 게르트 하이데만은 골동품 판매상에게 1932년에서 1945년 사이에 쓰였다는 히틀러의 일기를 넘겨받아 잡지사를 설득해 37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다. 하지만 60권에 이르는 방대한 전집은 쿠야우가 세계대전 당시 쓰였던 종이와 잉크를 사용해 멋대로 써내려간 히틀러의 '가짜 일기'였다.

'초현실 세계를 다룬 책' 섹션에 소개된 책도 흥미롭다. 빙의를 체험한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의 부인 조지는 3년 동안 남편의 무의식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었고, 4000페이지에 달하는 글은 1925년 '환각'이라는 책으로 묶여나왔다.

그밖에 비밀스럽게 전해야만 했던 이야기를 다룬 암호로 쓴 책, 상상에만 존재하는 동물들을 모아놓은 중세 백과 사전, 슬라이스 치즈 20장을 노란색 헝겊 표지로 감싼 책 등을 만날 수 있다. 〈갈라파고스·3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섬김의 리더십' 이태석 신부 배우기 열풍 까닭은?

울지마톤즈 학교

구수환 지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왜 꼭 아프리카여야 했나요? 당신을 지켜준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30년 가깝게 사회비리를 파헤치고 분쟁지역 전쟁터를 취재해온 시사고발 전문 PD는 2010년 1월 선종(善終)한 이태석 신부(1962~2010)의 삶을 되짚는 다큐를 제작하며 물음을 품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신학대에 진학해 사제 서품을 받은 이 신부는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신부이자 의사, 교육자로서 8년여 동안 봉사활동을 펼치다 대장암으로 48세 나이로 선종했다.

톤즈 현지를 찾아간 PD는 한센인 등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쫄리(John Lee) 신부'라는 애칭으로 불린 그의 생전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운 PD는 이후 다큐 영화 제작과 대중 강연, '이태석 리더십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이태석 신부의 정신과 리더십을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 전파하고 나섰다. (사)이태석재단 구수환 이사장의 이야기이다.

신간 '울지마톤즈 학교'는 저자의 절판된 '울지마톤즈 그 후 선물'(2011년)의 개정판이다. 저자는 '개정판에 붙여'에서 이태석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지만 전국 교육현장에서 '이태석 신부 배우기' 열풍이 부는 까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한 사제의 삶에 대해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삶 속에 담긴 이타심과 공감의 힘입니다. 돈과 특권,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희망의 빛줄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다큐 '울지마 톤즈'(2010년)와 '부활'(2020년)을 만들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는 이유이다.

'이태석 신부로부터 배우는 네 개의 메시지'라는 부제를 붙인 신간은 크게 ▲참을 수 없는 이타심 ▲죽음을 잊은 용기 ▲절실하고 헌신적인 실천 ▲감사하며 섬기는 마음 등 4부로 구성됐다.

저자는 톤즈에 성당보다 병원과 학교를 우선 세우고, 환자 진료에 앞서 1~2분간 환자 눈을 바라보며 교감하고, 한센인들을 위한 나만의 신발을 맞춰주는 등 이 신부의 헌신적인 삶과 봉사정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27편의 에세이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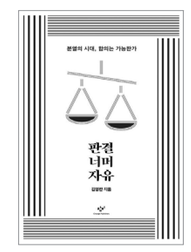
저자는 "'이태석 리더십'에는 거창한 구호가 없다. 말보다는 실천이었다. 헌신과 겸손 그리고 진정성, 이것이 톤즈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고 강조한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 자리한 '그린리프 센터'는 다큐 '울지마 톤즈'를 본 후 "'섬김의 리더십'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한국에도 섬김의 리더십이 많이 확산되어 사회적 약자에게는 용기를, 국민에게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 "리더는 희망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은 진정성에서 나옴"을 강조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앞둔 시점에서 묵직한 울림을 남기는 메시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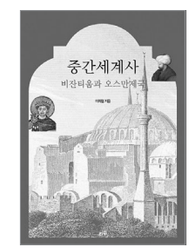
"국민의 착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임무이고 책임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우리에게 말보다 실천, 교만보다는 겸손, 과시보다는 헌신의 중요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이태석 신부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북루덴스·1만8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순진한 삶='강력한 자기파괴적 힘을 발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장수진의 세 번째 시집. 이번 시집은 시인의 지난 과거, 순수한 감정 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60편을 담았다. 저자가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하고 극단에서 다양한 배역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했던 경험 등이 녹아 있다. 다채로운 페르소나는 '상담사'와의 추억이 되거나 '아마추어 여성 영화 감독', '굶어 죽은 소년' 등이 된다. 그 속에서 희망 없는 세상을 목도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고통을 시적으로 형상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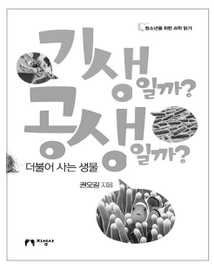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대단한 세상=레바논 베이르트에서 자란 네 형제의 노정을 담아낸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데 실패하고 파리에서 새 삶을 살아가려는 '장', 연락 끊긴 동성 애인을 찾기 위해 사이공으로 향한 '에티엔'의 이야기가 있다. 사범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짓말을 한 뒤 언론사에 입사한 '프랑수아', 부모 품에서 벗어나려 일단 가출한 '엘렌'의 고민은 달라도 한 시대를 조명하는 공통분모가 있다. 프랑스 리얼리즘을 계승하며 스릴러물의 기법으로 독자를 흡입한다. 〈열린책들·2만3000원〉

▲판결 너머 자유=인간 사이의 '합의'라는 가치가 절실해진 요즘, 사회는 다방면에서 극한의 대립과 분열로 치닫곤 한다. 다원화된 사회라지만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관용과 합의, 그 본래 기능은 상실되고 있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등 서구철학사의 사상들을 언급하며 소수자 기본권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재산권 보호 범위와 손자녀 입양 등 사례를 검토한다. 〈창비·1만8000원〉

▲중간세계사, 비잔티움과 오스만제국=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고정관념의 굴레를 만들었다. 그 정수를 담고 있는 비잔티움과 오스만 제국을 통해 문화 변천사를 탐구한다. 편협한 관점이 가리고 있던 세계사의 빈틈을 진맥한다. 서구적 시각에서 동양은 늘 '문화적 타자'에 불과했지만 문화적 충돌은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한다. 〈리수·2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기생일까? 공생일까?=바다 수세미, 마이크로바이옴 등 다양한 공생 생물들의 비밀을 파헤친다. 흔히 '공생'을 말할 때 악어와 악어새 정도를 떠올리지만, 그 범위는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인 지의류뿐만 아니라 해로동혈과 해로새우, 조개와 물고기 등이다. 기생과 공생의 차이부터 정확한 '공생'의 정의를 짚어본다. 〈지성사·1만9000원〉

▲어른 절대 사절 노노식당=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하는 '노 키즈 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러한 편견은 어린이가 시끄럽고 더럽다는 고정관념을 확산시킨다. 서툴고 느리지만 오히려 어린이를 기다려주는 식당은 없을까. 다름과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노키즈'와 '노 어른' 존 자체를 금하는 '노노식당' 속 이야기. 〈꿈터·1만2000원〉

▲오늘도 구르는 중=평범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지만 휠체어를 탄 주인공은 여러 어려움을 마주한다. '휠체어 타기'는 안경을 쓰는 것처럼 특별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주변에서 힐끔거리거나 수군거리지 않는다면 휠체어 탑승은 유별난 일이 아니다.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주변 시선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소개한다.

〈풀빛·1만3000원〉